

## 창업보육센터 지원정책 고도화를 위한 지역특성 반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corpora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Upgrading of the Support Policy for the Business Incubators

김현수\* · 조대명\*\*

#### 《 目 次 》

I. 서 론	IV.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II. 문헌연구 및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론	참고문헌/Abstract

#### <요약>

창업보육센터는 물리적 지원, 기술개발지원, 경영 및 행정지원, 네트워크 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미진하다는 비판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 정책과 선행연구들은 중앙 집중적이며 일률적인 외생적 발전 개념에 근거한 지원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실 창업보육센터를 퇴출하고, 죽음의 계곡 극복에 초점이 맞춰진 보육기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상당부분 지역별 보유자원 및 인구특성을 배제한 일률적인 외생적 발전 전략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신 내생적 발전전략 기반의 창업보육센터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현재 창업보육센터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를 조사하였으며 더불어 창업보육센터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의견에 기반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창업보육센터의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창업보육센터, 스타트업, 신 내생적 발전

**한국창업학회지 연구분류 I :** Type-① (새로운 현상, 관련성)

**한국창업학회지 연구분류 II :** 창업보육, 정책사례연구

논문접수일 2018.08.10. 수정일(1차) 2018.09.19. 수정일(2차) 2019.02.22. 게재확정일 2019.03.17.

\*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제1저자, Email: sthuchi@hanmail.net)

\*\*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Email: dmjo@hanyang.ac.kr)

## I. 서론

창업은 신규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로 인해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여 신규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영희, 이호성, 2016; 이현호, 황보윤, 공창훈, 2017). 스타트업들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를 진행한다. 기술사업화는 높은 위험성을 가지며, 성과예측은 극도로 불확실하다. 또한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자원과 역량의 투자가 필요하다(Li, Guo, Liu, and Li, 2008).

스타트업들은 기술사업화 및 비즈니스 과정에서 내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자원을 탐색하며, 외부 자원의 활용방안 중 대표적인 전략적 행위가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입주라고 할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이는 창업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발전에 기여한다(현말순, 조인석, 안상봉, 2017). 하지만, 창업보육센터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과가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여 질적 제고를 꾀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배영임, 2016).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보육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실 창업보육센터를 퇴출하고, 현재 죽음의 계곡 단계에 초점이 맞춰진 보육기능을 전·후방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시장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지역 간 경쟁압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경쟁력 향상 없이는 국가 경쟁력 향상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역산업의 첨단화, 핵심기술 역량 제고, 혁신클러스터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동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류덕위, 2007). 이러한 이유로 지역별로 유리한 조건을 가진 특화산업이 지역적 토대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벤처 및 스타트업의 지방화는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고급 노동력이 지역으로 유입될 것이며,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과정에서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외부의 노동력이 지역으로 흡수될 것이다. 또한 클러스터의 구성 등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정보인프라형성을 통해 국가 경제의 지역 집중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최중수, 김성은, 2001).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를 지역적 특성을 배제하고 동일하고 일률적인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실질적 성과유도를 위해 지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창업보육센터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은 깊이 연구 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타트업 육성 및 창업보육

센터 발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 이론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지역발전 이론은 외생적 발전이론, 내생적 발전이론, 신 내생적 발전이론으로 구분된다(Galdeano-Gómez, Aznar-Sánchez, and Juan C, 2011). 신 내생적 발전이론은 고용 창출 비용의 과다, 대기업유치를 통해 성장하였으나 시장조건의 변화로 대기업의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후유증,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방해하는 외생적 발전과 내부자원과 주체적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발전이 어려운 내생적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두되었다. 신 내생적 발전론자들에 따르면, 지역의 발전에는 지역 내부의 노력 및 지역과 외부행위자 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의 긴밀한 협력, 지방분권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재분배, 지방정부와 민간의 배분된 권한 공유가 중요하다(허훈, 김홍태, 2017).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창업보육센터 입주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성공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 개선점에 초점을 맞추고, 신 내생적 발전 관점에서 선행연구 및 기존 정책에서 간과하였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창업보육센터 발전방안을 도출 하였다.

## II. 문헌연구 및 이론적 배경

### 2.1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한 신규 기업으로(고영희, 이호성, 2016), 공동의 목표를 가진 소수의 전문가들이 모인 소규모 조직으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창의적 성과를 달성한다(박준기, 이혜정, 2016). 스타트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해 신규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한다(이현호 등, 2017).

스타트업은 신생의 불리함(liability of newness)과 소규모의 불리함(liability of smallness)을 가진다. 신생기업은 새로운 역할, 학습의 어려움, 신뢰의 부족, 고객 확보 어려움의 불리함을 가지고 있으므로(Stinchcombe, 1965), 신생의 불리함은 신생기업 실패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된다(Bruton and Rubanik, 2002). 신생의 불리함은 자원과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하므로(Thornhill and Amit, 2003), 신생기업은 지식을 내재화하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Calantone, Cavusgil, and Zhao, 2002). 소규모의 불리함은 작은 규모로 인한 불리함으로, 소규모 기업은 자본조달, 세율의 적용, 노동력 확보에서 불리하다(Aldrich and Auster, 1986). 소규모 기업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시장위험 최소화가 어려우며 경험이 부족하고 경영능력과 고급인재 확보에서 불리하다(Esteve-Pérez and Mañez-Castillejo, 2008). 중소기업은 소규모의 불리함으로 인해 대기업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Bruderl and Schussler, 1990), 제품의 유연화 및 혁신을 통해 소규모의 불리함을 극복해야 한다(Bierly and Daly, 2007).

## 2.2 지역발전이론

지역발전이론은 외생적 발전이론, 내생적 발전이론, 신 내생적 발전이론으로 구분된다 (Galdeano-Gómez et al, 2011). 외생적 발전(exogenous development)은 지역개발에 있어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며 일률적인 법칙과 방법을 사용한다. 외생적 발전의 핵심과제는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중앙 집중적 방안을 개별지역에 적용해 지역 간 특성과 차별성을 없애는 것이다. 외생적 발전의 주요 원리는 규모의 경제와 집중이며 핵심동력은 성장 중심축인 도시가 된다(김태연, 필립로우, 2012).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은 지역이 보유한 자원들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핵심을 차지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내생적 발전의 주요 목적은 지역의 내부 자원을 동원해 지역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내생적 발전은 지역적으로 특수한 인적 및 환경적 역량의 육성을 통해 지역 간 차별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핵심과제로 한다. 내생적 발전은 지역 내부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 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외생적 발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의 경우 인적자원, 주체역량 부족, 경제인구 규모 등의 한계로 인해 독자적 발전이 쉽지 않다(임배근, 2011).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외생적 발전의 종속적 발전, 왜곡된 발전, 파괴적 발전, 전체적 발전의 문제와 내생적 발전의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 외부요소 역할배제, 능력향상 방안 결여, 외부와의 연계체계 결여에 대한 비판을 [표 1]로 정리 하였다(이기원, 나정대, 2014).

[표 1] 외생적 발전과 내생적 발전에 대한 비판점

외생적 발전 비판		내생적 발전 비판	
종속적 발전	외부기관(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정책결정에 지속적 의존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	자율적 발전은 이상적이나 자본주의적 현실 적용의 어려움
왜곡된 발전	특정한 지역, 산업, 계층에 대한 지원집중	외부요소 역할 배제	외부요소 활용방안 없음
파괴적 발전	지역 간 문화적 및 환경적 차이 제거	능력향상 방안 결여	발전과정 조율 및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
전체적 발전	외부 전문가 및 계획가에 의한 고안	외부와의 연계체계 결여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자연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리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음

※ 자료원 : 이기원, 나정대(2014), 신내생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본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고찰

신 내생적 발전(neo-endogenous development)은 지역발전을 지역 내부와 외부의 상호 작용으로 인식한다(Katona-Kovacs, 2014). 신 내생적 발전은 지역발전 전략의 새로운 대안으로 내부자

원 및 역량과 외부 자원 및 역량의 유치와 조력을 필요로 하며(임배근, 2011), 외부와 내부의 네트워크와 외부와 내부의 중간에 있는 중재자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신 내생적 발전에서는 네트워크 내에서의 힘의 불균형이나 지역의 미약한 네트워크가 주요문제이므로, 외부의 지원들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 내생적 발전은 외생적 발전과 내생적 발전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창출하는 지역 행위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Bosworth, 2006). 신 내생적 발전의 추진동력은 공간적 범위의 구분 없이, 지역 내외의 다양한 기관, 기업, 국제기구이다. 이는 기존 외생적, 내생적 발전론의 공간적 이분법을 극복한 것이다.

## 2.3 창업보육센터 관련 이론 및 지원서비스

### 2.3.1 창업보육센터 현황

창업보육센터는 기업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생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며(Smilor, 1987), 신생기업들이 창업 초기의 불확실한 단계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Cornelius and Bhabra-Remedios, 2003). 창업보육센터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고용의 확대를 위해 신생기업을 지원하며(Lesakova, 2012), 창업보육센터 입주하는 스타트업이 신생과 소규모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대표적 방안이다. 창업보육센터는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의 신규고용창출 및 산업발전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1998년부터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의 전문성과 공간을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김성민, 임옥빈, 안상봉, 2017).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및 (사)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표 2] 창업보육센터 현황

지역	센터수	지역	센터수
서울	33	울산	1
경기	51	대구	12
인천	5	경북	22
강원	14	경남	17
충남	15	전남	12
대전	14	광주	13
충북	15	전북	15
세종	2	제주	4

부산	17	합계	262
----	----	----	-----

※ 자료원 :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http://www.bi.go.kr>)

창업보육센터는 자금출연자, 지리적 위치, 보육 대상 기업에 따라 분류되며, 창업보육센터의 범주는 모든 유형의 창업보육센터를 포함한다. 2007년 8월 이후 창업보육센터는 대부분이 대학 부설이며, 지자체가 소수 창립한 창업보육센터들도 위탁운영을 대학에 맡기고 있다(김성민 등, 2017). 국내에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외에도 지자체 창업보육센터와 민간 창업보육센터 등이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표 3] 창업보육센터의 유형 구분표

구분		특성
기준	유형	
설립 및 운영 주체	공공 및 비영리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립</li> <li>• 경제의 다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표</li> <li>• 고용 창출 및 과세 대상의 확대</li> </ul>
	대학 및 연구기관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및 연구기관이 설립</li> <li>• 연구 결과의 상업화 및 기술 이전</li> <li>• 사업화 결과에 따른 대학 재정 수입 강화</li> <li>• 지역 사회에의 기여 및 대학(연구소) 이미지 제고</li> <li>• 연구 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산학 협동</li> <li>• 소속원 및 졸업생에게 창업 기회 제공</li> </ul>
	민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및 민간기업이 비즈니스를 위해 투자 운영</li> <li>• 영리 추구 및 기업의 구조 개편 등이 목적</li> <li>• 신기술 확보 및 기술 이전에 투자, 부동산 개발 목적</li> </ul>
	민간/공공 합작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대학 및 공공단체 등에서 공동 설립</li> <li>•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 및 민간의 전문기술과 자본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li> </ul>
특화 여부	특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대상에 해당되는 전체 입주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거나 중소 기업청과 협약에 따라 전체 보육실 면적 중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 보육 지원</li> <li>•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서비스를 특화(Post-BI)</li> <li>• 지원 인력의 해당 업종 전문가 확보 필요</li> </ul>
	비 특화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복합형 보육</li> <li>• 전반적인 경영능력을 보유한 전문경영인 확보 필요</li> </ul>
지리적 위치	대학 (인접)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축적된 인적 자원, 기술 및 설비 활용</li> <li>•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에 적합</li> <li>• 연구 결과의 조속한 사업화 가능</li> </ul>
	도시지역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설비 등 물적 자산에 접근 용이</li> <li>• 시장 근접, 마케팅 활동 유리</li> </ul>
	농촌지역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고유의 자원 획득 유리</li> <li>• 입주 공간 사용료 등 고정 경비가 상대적으로 저렴</li> </ul>
운영	자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설립 목적에 충실한 운영 정책 시행</li> </ul>

방침	센터	• 지원 서비스의 전문화, 특화 운영 가능
	비자립	• 운영비 지원기관의 정책 반영
	운영센터	• 운영기관의 이익 배제로 공공이익 반영

※ 자료원 : 창업보육센터 운영가이드(2013)

### 2.3.2 창업보육센터 지원 서비스와 기술사업화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Bruneel, Ratinho, Clarysse, and Groen, 2012). 사무공간을 비롯한 공동시설을 사용하고, 보육센터의 코칭을 통해 부족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며, 보육센터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지식, 정보, 자본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며(Elfring and Hulsink, 2003),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자원의 전략적 사용은 신생의 불리함과 소규모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다(Lechner, Dowling, and Welp, 2006). 기업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보완적 자산과 자원의 확보를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Baum, Tony, and Brian, 2000).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으로(이인우, 오영환, 김병만, 2015), 거시적 관점에서는 국가 수준의 R&D 효과성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미시적 관점에서는 기업 및 개인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된다(전승표, 최대현, 박현우, 서봉군, 박도형, 2017).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은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진행한다. 이러한 기술사업화 과정에는 기업의 다양한 자원, 역량과 함께 투자가 필요하다.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성공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기술, 자본, 비즈니스 노하우, 기업가적 재능이 맞물려야 하나, 이러한 기술사업화의 제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스타트업은 많지 않다(원준연, 2016). 따라서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를 통해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표4]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며,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원서비스 유형을 분류하여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표 4] 창업보육센터 지원 서비스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항목
최종열·정해주(2006)	- 장비 및 시설지원, 인력지원, 마케팅지원, 컨설팅지원, 자금지원, 기타지원
조인석·김영문(2011)	- 물리적 지원, 기술개발지원, 경영 및 행정지원
최강득·김영문(2015)	- 경영지원서비스, 기술지원서비스, 물리적지원서비스
배영임 (2016)	- 물리적 시설 및 장비 지원, 경영/법률지원, 네트워크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교육지원
Bruneel et al(2012)	- 물리적(Infrastructure)지원, 사업(Business)지원, 네트워크접근(Access to Network)지원

Lesakova (2012)	- 창업보육센터의 공통된 서비스들을 네트워킹활동, 마케팅지원, 회계 및 재무적 관리, 은행대출알선, 발표능력향상, 높은 교육자원 알선, 기술사업화지원 멘토링
--------------------	---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론

#### 3.1 연구문제

창업보육센터는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다(Soetanto and Jack, 2013). 정부는 창업을 고용 창출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여기며 지속적으로 창업보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보육센터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지원서비스 수준 등의 실효성에서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배영임, 2016).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의 질적 성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보육 지원 체계 전면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죽음의 계곡(3~7년 차) 단계에 집중된 보육 기능을 전후방으로 확장하고 센터장과 매니저의 보육역량 제고 및 동기부여를 강화하며 단계별 보육프로그램 및 연계지원을 확충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를 “경영평가”로 재편하고 인프라 위주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며, 성과중심 경영평가는 창업보육센터를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함량 미달 보육센터를 선별 및 퇴출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한다.

창업보육센터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보육기능의 전후방 확장과 보육프로그램의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지원서비스와 경영성과를 통한 평가 및 퇴출에 있어 지역 특성 반영이 부족하다. 전국의 창업보육센터가 중앙 집중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는 외생적 발전 전략에 부합한다. 외생적 발전은 지역 간 특성과 차별성을 없애고자 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외부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지역의 자생성을 약화시킨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정책이 외생적 발전전략을 유지한다면, 창업보육센터는 차별화된 지역 자원과 역량의 탐색 및 활용보다는 중앙의 지원과 정책에 의존하게 되며 지역별로 차별화 되지 않고 일률적인 지원서비스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정책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향후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업보육센터 혁신 및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이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창업보육센터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입주기업의 입장에서 지원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은 지원서비스를 통한 경쟁력과 자생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창업보육센터는 불만족 수준의 분석을 통해 자원의 효과적 지원 및 운영정책을 수립과 지원서비스의



체계적 특성을 분류해야 한다(김승현, 전영록, 2014). 창업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입주기업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확인 후 강화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창업보육센터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매니저 고용과 지원정책의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제시하였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관점에서 지원서비스를 연구 하였다(조인석, 김영문, 2011; 배영임, 2016; 최강득, 김영문, 2015).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창업보육 사업의 진행이 미진한 상황이다. 김변옥, 강효녕(2010)에서도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의 문제점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육정책 미흡, 보육센터 간 연계 네트워크 부족, 창업보육센터 자립기반 취약, 창업보육 인력의 비전문화 및 신분의 불안전성을 지적하며 지역특성 반영의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우리나라는 인구, 교육, 산업, 금융, 문화시설 등 모든 국가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조승현, 양애숙, 제태환, 최성섭, 2015). 따라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를 고려하기 위한 지역구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보유자원 및 인프라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스타트업들이 기술사업화 과정에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가 다를 것이므로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도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문제 :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

### 3.2 조작적 정의 및 설문문항

본 연구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창업보육센터 지원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표 5] 기술사업화, 창업보육센터 지원 조작적 정의 및 설문문항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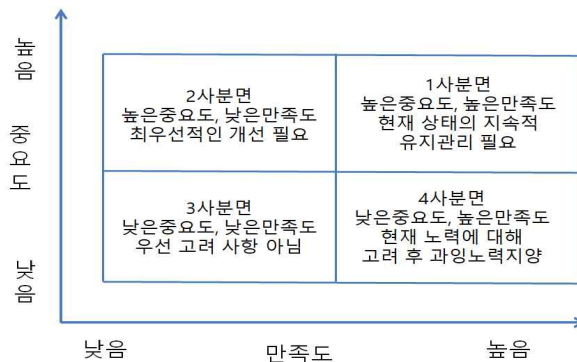
분류	정의 및 설문문항	선행연구 출처
기술사업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 하는 것	이인우 등(2015)
창업보육센터 지원 설문문항	1)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제공 2) 기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 제공 3)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한 시설 제공 4) 시설임대료가 저렴 5) 입주기업에 필요한 기술의 획득을 위한 기술이전 지원 6) 기술개발 자문 또는 공동연구 지원 7) 특허 등록 및 지재권 확보 지원 8) 국내외 기술관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9) 경영컨설팅을 비롯한 경영관련 전문서비스를 지원	조인석, 김영문 (2011); 임성준, 김장권 (2011); 배영임(2016); Bruneel et al(2012);

	10)정책자금 정보를 비롯한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를 지원 11)조직구성 및 인력 확보를 지원 12)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지원 13)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14)외부기업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15)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연계를 지원 16)정부 및 지자체 관련 사업간 연계를 지원 17)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제공 18)창업실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 19)기술, 시제품 제작 및 기술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공 20)경영 및 세무회계에 대한 교육을 제공 21)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보유자원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22)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특화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23)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투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 24)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	Lesakova (2012)을 참고하여 저자 보완작성
--	--	-------------------------------------

###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생각하는 중요도(I)와 서비스 만족도(P)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지원 서비스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IPA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은 데이터를 각 항목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2차원적 도표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매트릭스를 통해 다양한 요인들이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표시되어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할 수 있다(임새미, 2017). IPA분석은 소비자의 수용성을 평가할 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4분면으로 구성된다(Martilla and James, 1977).



[그림 1] IPA분석 매트릭스

IPA분석에서 나타나는 4분면을 통해 관리자들은 우선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트릭스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으며, 매트릭스에서 4분면을 생성해주는 점점의 기준은 크게 4가지(평균값, 표준편차, 중앙값, 임의적 방법)가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평균값을 가지고 점점을 생성하였다(이태희, 김홍렬, 윤설민, 장윤정, 2007). IPA분석의 1사분면은 높은 중요도와 만족도로 현재의 좋은 성과를 지속유지, 2사분면은 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로 최우선 개선 필요, 3사분면은 낮은 중요도와 만족도로 자원의 제한적 활용 필요, 4사분면은 낮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로 불필요한 항목에 대한 과잉노력을 고려 후 과잉노력 지양이 필요한 구간이다.

## IV.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 4.1 설문조사 및 표본특성

신뢰성 높은 자료 수집을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조작적 정의와 설문문항을 추출 하였으며, 수도권권과 비수도권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6] 표본의 특성

지역분류	대분류	소분류	기업	비율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업종	자동차	4	3.5
		화학, 에너지	5	4.4
		건설	2	1.8
		기계금속	8	7.0
		전기, 전자	14	12.3
		IT(정보통신)	49	43.0
		의료, 바이오	8	7.0
		기타	24	21.1
	합계	114	100	
비수도권 (충북, 충남, 대전, 전북, 광주, 경북, 대구, 강원)	업종	자동차	2	1.6
		화학, 에너지	10	7.9
		건설	4	3.1
		기계금속	5	3.9
		전기, 전자	13	10.2
		IT(정보통신)	40	31.5
		의료, 바이오	21	16.5
		기타	32	25.2
	합계	127	100	

### 4.2. 분석

스타트업들이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도와 실제 인지하고 있는 만족도의 평균값과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7, 8]과 같다. 수도권은 24개 항목 중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제공 외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비수도권은 24개 항목 중 특허 등록 및 지재권 확보 지원, 조직구성 및 인력 확보를 지원,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특화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외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7] 수도권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중요도-만족도 평균값 차이 검정 결과

	속성	평균값		T-VALUE	P-VALUE
		중요도	만족도		
1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제공	4.5	4.236842	3.790	.000
2	기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 제공	4.087719	3.526316	5.675	.000
3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한 시설 제공	4.122807	3.447368	6.913	.000
4	시설임대료가 저렴	4.464912	3.614035	7.672	.000
5	입주기업에 필요한 기술의 획득을 위한 기술이전 지원	3.72807	3.04386	6.413	.000
6	기술개발 자문 또는 공동연구 지원	3.72807	3.008772	6.355	.000
7	특허 등록 및 지재권 확보 지원	4.00885	3.201754	8.233	.000
8	국내외 기술관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017544	3.105263	8.716	.000
9	경영컨설팅을 비롯한 경영관련 전문서비스를 지원	3.719298	3.131579	5.952	.000
10	정책자금 정보를 비롯한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를 지원	4.201754	3.184211	8.859	.000
11	조직구성 및 인력 확보를 지원	3.491228	2.973684	4.349	.000
12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지원	3.77193	2.982456	6.625	.000
13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3.631579	3.535088	.939	.350
14	외부기업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3.850877	3.315789	5.679	.000
15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연계를 지원	3.517544	3.236842	2.610	.010
16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사업간 연계를 지원	4.122807	3.298246	7.732	.000
17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제공	3.078947	3.035088	.385	.701
18	창업실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	3.535088	3.087719	3.571	.001
19	기술, 시제품 제작 및 기술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공	3.798246	3.04386	6.788	.000
20	경영 및 세무회계에 대한 교육을 제공	4.333333	3.052632	2.663	.009
21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보유자원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3.535088	3.236842	2.803	.006
22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특화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3.438596	3.114035	3.018	.003
23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투자가에 대한	3.517544	2.894737	5.145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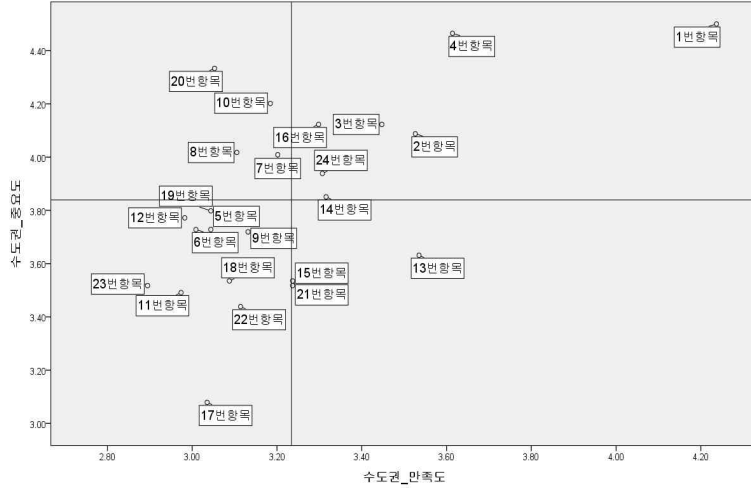
창업보육센터 지원정책 고도화를 위한 지역특성 반영에 관한 연구

	정보를 제공				
24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	3.938596	3.307018	5.963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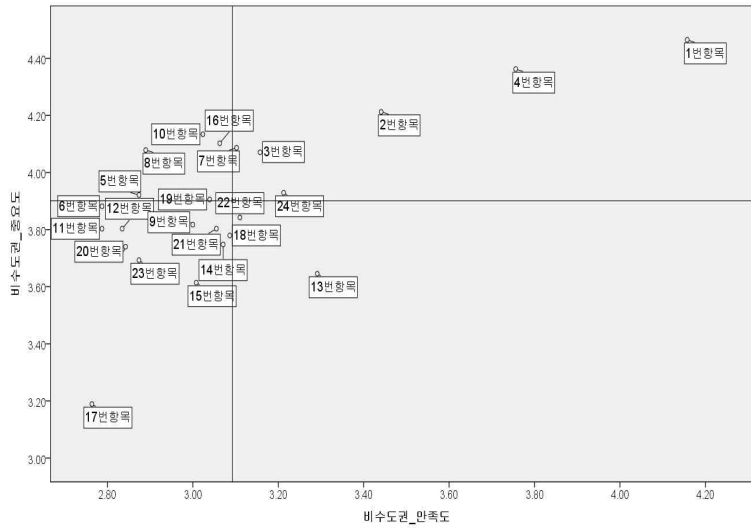
[표 8] 비수도권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중요도-만족도 평균값 차이 검정 결과

	속성	평균값		T-VALUE	P-VALUE
		중요도	만족도		
1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제공	4.464567	4.15748	8.938	.000
2	기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 제공	4.212598	3.440945	5.062	.000
3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한 시설 제공	4.070866	3.15748	2.655	.009
4	시설임대료가 저렴	4.362205	3.755906	6.412	.000
5	입주기업에 필요한 기술의 획득을 위한 기술이전 지원	3.92126	2.874016	4.398	.000
6	기술개발 자문 또는 공동연구 지원	3.88189	2.787402	2.814	.006
7	특허 등록 및 지재권 확보 지원	4.086614	3.102362	-1.096	.275
8	국내외 기술관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07874	2.889764	3.991	.000
9	경영컨설팅을 비롯한 경영관련 전문서비스를 지원	3.81746	3	8.028	.000
10	정책자금 정보를 비롯한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를 지원	4.133858	3.023622	4.300	.000
11	조직구성 및 인력 확보를 지원	3.80315	2.787402	.687	.493
12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지원	3.80315	2.834646	11.146	.000
13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3.645669	3.291339	8.679	.000
14	외부기업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3.748031	3.070866	3.984	.000
15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연계를 지원	3.614173	3.007874	6.354	.000
16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사업간 연계를 지원	4.102362	3.062992	6.771	.000
17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제공	3.188976	2.76378	7.529	.000
18	창업실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	3.779528	3.086614	4.984	.000
19	기술, 시제품 제작 및 기술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공	3.905512	3.03937	11.475	.000
20	경영 및 세무회계에 대한 교육을 제공	3.740157	2.84252	8.341	.000
21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보유자원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3.80315	3.055118	2.852	.005
22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특화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3.84252	3.110236	1.434	.154
23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3.692913	2.874016	7.836	.000
24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	3.929134	3.212598	6.536	.000

IPA분석의 접점은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최우선개선과 과잉노력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들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림 2] 수도권 IPA분석 결과



[그림 3] 비수도권 IPA분석 결과

[표 9] 수도권과 비수도권 IPA분석을 통한 최우선 개선점 및 과잉노력 지양부분 확인

지역	2사분면	4사분면
	최우선 개선필요	과잉노력지양
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 등록 및 지재권 확보</li> <li>- 국내외 기술인증 지원</li> <li>- 정책자금 정보를 비롯한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li> <li>- 경영 및 세무회계에 대한 교육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li> <li>-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연계</li> <li>-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보유자원 활용 정보제공</li> </ul>
비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기업에 필요한 기술획득을 위한 기술이전 지원</li> <li>- 국내외 기술인증 지원</li> <li>- 정책자금 정보를 비롯한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li> <li>-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사업간 연계를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li> <li>-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li> </ul>

### 4.3 고찰 및 시사점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최우선 개선 필요와 과잉노력 지양에 해당하는 요인이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며, 기존 공급자 중심의 외생적 발전 관점 지원서비스에서 지역내부와 외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신 내생적 발전 관점 지원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향후 신 내생적 발전 관점에서 물리적 지원을 비롯한 기본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지역 내부 자원 탐색과 투입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협의회를 통해 지역 특성이 고려된 지원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최우선 개선필요와 과잉노력 지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리적지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높은 중요도와 만족도를 보였다. 창업보육센터의 물리적 지원은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는 지속적인 물리적 지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향후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형 BI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수도권은 최우선 개선 필요로 특허 등록 및 지재권확보, 국내외 기술 인증지원, 정책자금 정보를 비롯한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지원, 경영 및 세무회계에 대한 교육제공으로 나타났다.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전략 및 기술인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경영 및 세무회계, 기술, 시제품제작, 기술보호에 대한 교육기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과잉노력을 지양해야할 부분은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형성,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연계,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보유자원 활용 정보제공으로 나타났다. 현

재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킹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입주기업간의 내부네트워킹이 과잉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외부네트워크보다 내부네트워크를 우선시 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의 네트워크행사에서는 입주 기업들 간의 내부네트워크와 함께 창업보육센터 외부의 기업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도 과잉노력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도권에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 창업보육센터를 통하지 않아도 분야별 전문가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멘토의 양을 늘리기보다 입주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멘토 선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산업인프라가 확보된 수도권에서는 손쉽게 지역 보유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지역 보유자원에 대한 정보보다는 자금 확보 관련 정보 같은 입주기업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비수도권은 최우선 개선 필요로 입주기업에 필요한 기술획득을 위한 기술이전 지원, 국내외 기술인증 지원, 정책자금 정보를 비롯한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를 지원,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사업간 연계를 지원으로 나타났다. 기술획득을 위한 기술이전 지원, 국내외 기술인증 지원, 시제품 제작 및 기술보호에 대한 교육 제공은 기술사업화에 필수적인 기술의 확보 및 우수성 입증에 필요하므로 차별화된 지원서비스를 위한 우선적 개선이 필요하다.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와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사업간 연계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비수도권에서 과잉노력을 지양해야할 부분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입주한 창업보육센터 지역의 특화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으로 나타났다.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확장해야 하며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산업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 개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신 내생적 발전은 지역 내부자원과 함께 외부 역량의 유치와 조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신 내생적 발전을 창업보육센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 자원을 확실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엔젤 및 액셀러레이터 같은 주요 스타트업 투자가들과의 연계와 리빙랩및 코워킹 스페이스형 창업보육센터를 제안한다.

엔젤투자는 재무적 수익을 목적으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을 지원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윤영숙, 황보윤, 2014).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액셀러레이터는 3개월간 집중적인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사무공간과 네트워킹을 제공한다(Cohen, 2013). 액셀러레이터는 단기간 집중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엔젤과 차이가 있다. 투자가들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업팀, 기업가에 기반 하여 투자를 하며, 기업가 및 창업팀의 비즈니스 몰입여부를 고려한다(Cardon, Sudek, and Mittens, 2009). 창업보육센터가 엔젤 및 액셀러레이터 같은 스타트업 투자자와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지역별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엔젤 및 액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지원 및 투자에 대한 지역적 범위가 넓어지며 엔젤 및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한 교육 및 멘토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창업보육센터는 엔젤 및 액셀러레이터에게 지역 스타트업정보를 제공하고, 스타트업들에게는 엔젤



및 액셀러레이터의 경험과 역량을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면 선순환적인 창업생태계 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지역과 사회의 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생태계인 리빙랩이 이슈화되고 있다(최인수, 김건위, 2015). 리빙랩은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 혁신모델이다. 리빙랩은 ‘살아있는 실험실’,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북촌 리빙랩, 성대골 리빙랩, 건너유 프로젝트의 리빙랩이 도입되고 있다. 리빙랩은 양로원, 학교, 도시 등의 특정 공간과 지역을 기반으로 공공연구부문,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해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연구혁신 활동의 주체이며 실제 생활 현장에서의 실험과 실증을 강조한다(성지은, 한규영, 정서화, 2016). 지역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는 리빙랩을 도입한다면 지역 보유자원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코워킹 스페이스는 일반적 오피스 공간과 다르게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스타트업과 비즈니스 관련 공간이 대다수이다(김재학, 이재규, 2018). 코워킹 스페이스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가치관을 공유하고 아이디어 및 노하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다(안효진, 김승인, 2017). 코워킹 스페이스는 공간제공과 함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인프라는 가치 창출의 핵심이 된다. 지역 내부자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활용이 가능한 지역전문가들이 모인 코워킹 스페이스형 창업보육센터를 구축한다면 지역 보유자원과 역량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지역 네트워크 구성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업보육센터 발전방안을 [표 10]로 정리하였다.

[표 10]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업보육센터 발전방안 제시

향후 창업보육센터 혁신방안 보완 및 발전방안에 대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업보육센터 지원 서비스 개선 차별화 및 경영성과 평가</li> <li>- 지역 간 협의회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보유자원 정보제공 및 스타트업 교류</li> <li>- 엔젤 및 액셀러레이터와 지역별 창업보육센터와의 네트워크 연결</li> <li>- 지역사회 사용자가 주체가 되는 리빙랩형 창업보육센터 건립</li> <li>- 지역 특성 전문가들이 모인 코워킹 스페이스형 창업보육센터 건립</li> </ul>
---	---

## V. 결론

정부는 창업보육을 주도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을 위해 많은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입주한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존 선행연구와 정책은 스타트업 육성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대한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창업보육 정책에서 간과되었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스타트업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는 지원서비스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우선개선 및 과잉노력 요인을 확인 하였으며, 신 내생적 발전이론 측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업보육센터 발전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외생적 발전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던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신 내생적 발전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집중했던 창업보육센터 지원의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창업보육센터 발전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특성차이를 반영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시사점을 얻었으나 기업의 성장단계와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역량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다양한 이론 및 실증분석방법들의 활용을 통해 본 연구의 탐색적인 결과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2017년 11월 정부는 10조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벤처확인제도 개편 등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스타트업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상장 전 주식유통을 지원하는 장외거래 플랫폼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을 개설하였다.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창업생태계의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화되고 실효성 있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및 맞춤형 스타트업 육성정책이 중요하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창업보육센터 및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이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고영희, 이호성(2016) "투자유치 전략을 위한 스타트업의 특성과 벤처캐피탈 투자구성의 상호연관성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1권 제2호, pp.63-73.
- 김번옥, 강효녕(2010), "인천 지역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김성민, 임옥빈, 안상봉(2017),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사후 지원에 대한 졸업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12권 제2호, pp.181-206.
- 김승현, 전영록(2014), "창업보육센터의 주요 서비스 요소에 대한 품질속성 분류",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제37권 제3호, pp.75-81.
- 김재학, 이재규(2018), "코워킹 스페이스의 제3의 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50권, pp.79-91.
- 김태연, 필립로우(2012), "신내생적 농촌발전의 개념적 특성과 활용 가능성 모색-세계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농촌개발모델의 모색", 「공간과 사회」, 제39권, pp.114-160.
- 류덕위(2007) "대전지역 혁신클러스터와 지역발전", 「벤처창업연구」, 제2권 제3호, pp.103-122.
- 박준기, 이혜정(2016), "스타트업 팀워크와 성과", 「벤처창업연구」, 제11권 제2호, pp.101-111.
- 배영임(2016),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와 매니저 역량이 입주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1권 제2호, pp.145-155.
- 성지은, 한규영, 정서화(2016),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리빙랩 사례 분석", 「과학기술학연구」, 제16권 제2호, pp.65-98.
- 안호진, 김승인(2017), "공유경제 서비스 사례분석을 통한 협력적 라이프스타일 연구-코워킹과 코리빙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10호, pp.405-410.
- 이기원, 나정대(2014), "신내생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본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고찰", 「지역사회학」, 제15권, pp.95-126.
- 원준연(2016), "스타트업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금융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취업진로연구」, 제6권 제1호, pp.23-45.
- 윤영숙, 황보윤(2014), "엔젤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특성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3호, pp.47-61
- 이인우, 오영환, 김병만(2015), "정부지원 기술사업화 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특구 기술사업화 사업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제30권 제6호, pp.581-594.
- 이현호, 황보윤, 공창훈(2017), "스타트업의 초기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2권 제1호, pp.1-13.
- 임배근(2011), "역사문화기반의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고도경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

- 연구」, 제20권, pp.193-219.
- 임성준, 김장권(2011).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지원전략 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390-400.
- 임새미(2017). "IPA 기법을 활용한 대학생의 교양체육 인식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56권 제1호, pp.125-138.
- 이태희, 김홍렬, 윤설민, 장윤정(2007), "IPA 를 이용한 문화관광축제의 매력 비교 연구." 「관광학연구」 제31권 4호, pp.263-280.
- 전승표, 최대현, 박현우, 서봉군, 박도형(2017),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기술사업화 기간 및 비용 추정 체계 개발", 「지능정보연구」, 제23권 제2호, pp.139-160.
- 조승현, 양애숙, 제태환, 최성섭(2015),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솔라월드코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1호, pp. 375-395.
- 조인석, 김영문(2011).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가 입주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6권, pp. 547-567.
- 중소기업청, (사)한국창업보육협회(2013), 「창업보육센터 운영가이드」.
- 최강득, 김영문(2015),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역량이 입주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1호, pp.551-574.
- 최인수, 김건위(2015), "리빙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16권 제4호, pp.83-101.
- 최중수, 김성은(2001),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벤처기업의 지방화 방안", 「대한경영학회지」, 제30호, pp.435-459.
- 최종열, 정해주(2006),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3권 제4호, pp.167-190.
- 허훈, 김홍태(2017), "신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양평군 헬스 투어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1권 제8호, pp.153-170.
- 현말순, 조인석, 안상봉(2017), "대학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제12권 제2호, pp.126-154.

<국외문헌>

- Aldrich, H. and E. R. Auster(1986), "Even Dwarfs Started Small: Liabilities of Age and Size and Their Strategic Implic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165-198.
- Baum, J. A., T. Calabrese, and B. S. Silverman(2000), "Don't Go It Alone: Alliance Network Composition and Startups' Performance in Canadian Biotechnolo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1(3), 267-294.

- Cornelius, B. and R. Bhabra-Remedios(2003), "Cracks In the Egg: Improving Performance Measures in Business Incubator Research," *16th Annual Conference of Small Enterprise Association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1-19.
- Bierly, III, P. E. and P. S. Daly(2007), "Alternative Knowledge Strategies, Competitive environ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Small Manufacturing Firm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4), 493-516.
- Bosworth, G.(2006), "Counterurbanisation and Job Creation: Entrepreneurial In-migration and Rural Economic Development," *Centre for Rural Economy Discussion Paper Series*, 4(4), 1-16
- Bruderl, J. and R. Schussler(1990), "Organizational Mortality: The Liabilities of Newness and Adolesce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3), 530-547.
- Bruneel, J., T. Ratinho, B. Clarysse, and A. Groen(2012), "The Evolution of Business Incubators: Comparing Demand and Supply of Business Incubation Services Across Different Incubator Generations," *Technovation*, 32(2), 110-121.
- Bruton, G. D. and Y. Rubanik(2002), "Resources of the Firm, Russian High-technology Startups, and Firm Growt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7(6), 553-576.
- Calantone, R. J., S. T. Cavusgil, and Y. Zhao(2002), "Learning Orientation, Firm Innovation Capability, and Firm Performan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1(6), 515-524.
- Cardon, M. S., R. Sudek, and C. Mitteness(2009), "The Impact of Perceived Entrepreneurial Passion on Angel Investing,"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29(2), 1-15.
- Cohen, S.(2013), "What Do Accelerators Do? Insights from Incubators and Angels," *Innovations: Technology, Governance, Globalization*, 8(3-4), 19-25.
- Elfring, T. and W. Hulsink(2003), "Networks in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High-Technology Firms," *Small Business Economics*, 21(4), 409-422.
- Esteve-Pérez, S. and J. A. Mañez-Castillejo(2008), "The Resource-based Theory of the Firm and Firm Survival," *Small Business Economics*, 30(3), 231-249.
- Galdeano-Gómez, E., J. A. Aznar Sánchez, and J. C. Pérez Mesa(2011), "The Complexity of Theories on Rural Development in Europe: An Analysis of the Paradigmatic Case of Almería," *Sociologia Ruralis*, 51(1), 54-78.
- Martilla, J. A. and J. C. James(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 Katona-Kovacs, J.(2014). "Where to Put the Focus in Rural Development: Changing the Focus From Funding to Learning," *Studies in Agricultural Economics*, 116(1), 41-48.
- Lechner, C., M. Dowling, and I. Welp(2006), "Firm Networks and Firm Development: The Role of the Relational Mix,"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4), 514-540.

- Lesakova, L.(2012), "The Role of Business Incubators in Supporting the SME Start-up," *Acta Polytechnica Hungarica*, 9(3), 85-95.
- Li, Y., H. Guo, Y. Liu, and M. Li(2008), "Incentive Mechanism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vidence from China's Transitional Economy,"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25(1), 63-78.
- Smilor, R. W.(1987), "Managing the Incubator System: Critical Success Factors to Accelerate New Company Development,"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EM-34(3), 146-155.
- Soetanto, D. P. and S. L. Jack(2013), "Business Incubators and the Networks of Technology-based Firms,"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38(4), 432-453.
- Stinchcombe, A. L.(1965), "Social Structure and Organizations," *Advances in Strategic Management*, 17, 229-259.
- Thornhill, S. and R. Amit(2003), "Learning about Failure: Bankruptcy, Firm Age, and the Resource-based View," *Organization Science*, 14(5), 497-509.

# A Study on Incorpora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Upgrading of the Support Policy for the Business Incubators

Kim, Hyeon-Su\* · Cho, Dae-Myeong\*\*

## Abstract

Business incubator gives aids to the growth of startups in various ways, such as material support, R&D support,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support, network support and educational support. Recently, in spite of quantitative increase of the incubators, there are criticism that qualitative aspects have been subordinated. Most of the support policies and previous studies for the business incubators have focused on the centralized administrative point of view based on the concept of exogenous development. The Korean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s now on the way to upgrading the support policies for the business incubators, extracting the inefficient business incubators with an idea of intensifying the incubator's intrinsic function which is to support the startups in the stage of death valley. However, as far as the upgrading policies are also designed in the passing-over of the regional population and resources with the exogenous development concep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desirable results of policy effectiveness. We assert that the regional characters have to be incorporated into the upgrading policies with the concept of neo-endogenous development for making substantial progress. Specifically,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current main services for the business incubators and survey results from the stakeholders in the incubators of Korea, we suggest the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d services considering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capital territory and non-capital territory.

**Keywords :** *Business incubator, Startups, neo-endogenous development*

**Research Classification of JTKE I:** *Type-① (New substantive phenomena, Relevance)*

**Research Classification of JTKE II:** *Business incubation, Policy and case research*

---

\*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First author, Email: sthuchi@hanmail.net)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mail: dmjo@hanyang.ac.kr)